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2012년 6월

선교편지 제 44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일 교회 단기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작은 도시가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교팀이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과 더불어 기대가 충만한 가운데, 단기 선교팀 방문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팀을 맞이하는 지역 교회의 준비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팀 방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 나도록 금년 초부터 3개의 교회 (마띠 교회, 해변 교회, 디고스 펠로우쉽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 중에는 물론이고, 각종 모임마다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디고스에 부흥의 불길이 새롭게 일어 나도록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의 찬양팀들도 단기 선교팀의 구원 사역 (Salvation Station)을 돕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띠 교회의 찬양팀은 매주일 모여 찬양과 율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해변 교회의 70여명의 어린이들도 주일 예배의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교팀을 가까이에서 돕기 위한 각 교회의 봉사팀들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는 해변교회 어린이들

특별히 단기 선교팀의 방문을 통하여 오랜 동안 기도하며 소망하였던 마띠 교회의 건축을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반쪽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마띠 교회 였는데,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당을 갖출 수 있게 되어서 마띠 교회의 건축 위원들의 모임이 매우 바빠졌습니다. 농번기인 6월을 보내고 7월 첫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건축을 위한 도면도 다시 그리고, 자재 가격들도 확인하고, 인력 수급도 준비한 상태입니다. 선교팀이 방문하기 전까지 바닥, 기둥 및 천정 공사를 진행하고, 선교팀의 도움을 힘 입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벽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그리며 교회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의료 사역 준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현지 의료팀의 협조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와 같은 기능의 현지 기관 (Provincial Health Office)을 통해 16명이나 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이 동참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의료 사역은 현지 주민들이 실제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과 진료'가 포함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 정부에 단 한대뿐인 치과 전용 버스가 단기 선교팀의 의료 사역에 무상으로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을 동원하기 위한 비용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확보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으로 밖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마 8:7)

이와 더불어 선교팀의 '안경 사역'에 대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시력 검사와 함께 절실히 필요한 안경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는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혜택이어서, 주민들 뿐만 아니라 현지의 의료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주된 사역지인 이곳 현지 학교의 준비는 더욱 더 부산하고 특별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 중에서 20여명을 선발하여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의 사역이 매일 장소를 달리하여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학생들의 협조가 매우 절실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여명의 학생 모두가 모든 사역의 목표와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단기 선교팀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선교팀의 환영식과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띠 고등학교 교실 보수

또한 선교팀을 맞이 하기 위하여 마띠 고등학교의 환경 정리는 매일 매일이 새롭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희들은 이미 마띠 고등학교의 가족과 같기 때문에 괜찮지만, 선교팀은 손님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오랜동안 방치해 두었던 학교내의 잡목과 잡초들을 벌써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실 외벽들은 페인트 칠로 깨끗이 단장을 하고, 책임 교사를 지정해서 교실 내부도 산뜻하게 환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담당자들에 의하면 3년여 만에 학교가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기 선교팀을 기다리며 이곳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레임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만 붙으면 됩니다. 주여, 갈급한 이곳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핏은지라 (열왕 18: 37)

 선교사라는 영광된 이름으로 이곳에 있지만,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사소한(?) 일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우선 '더위'로 인하여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년 내내 더운 열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보니, '진'이 빠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더운 열기를 피할 수 없고, 실외에서는 상황이 더욱 더 심각합니다. 낮에는 더위로 인하여 땀으로 범벅이 되고, 밤에는 더위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날은 평소보다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 두 벌의 상의를 준비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상의가 땀에 젖은 것인지, 비를 맞은 것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젖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띠 고등학교 교정

또한 이곳에서는 '음식'으로 인하여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현지 음식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현지 음식들이 달고, 시고 (Sour), 매우 짭니다. 또한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는 갈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괴로운 반응이 제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가능하면 집에서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위 외식을 하는 것이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현지 언어'로 인하여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언어와는 문법이나 사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알팍한 언어에 대한 선입관부터 깨뜨려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단어가 정말 생소한 까닭에 현지인의 이름을 기억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만나는 현지인 선생님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먼저 불러 봐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극복하는데 급급한 제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인하여 선교사로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맘을 유난히 많이 흘리며, 음식도 가려먹고, 새롭게 언어를 배우기에는 너무도 늦은 연약한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명쾌하게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성경을 통하여 선교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야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새로 건축된 Mini Gym에서 율동을 가르치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9:35)



마띠 토요 학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 열번 가까이 위의 귀절과 유사한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로 요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과 목표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을 귀히 여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 시키는데 주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는 선교 방법은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너무도 멀리 느껴지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방법은 저에게 도리어 선교사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낙심이 되는 말들로 다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 9:36)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중심에 제가 이곳에 와서 보고 느낀 선교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 9:36b) 제가 바로 이곳에서 경험한 선교지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곳에 오기 전에 선교지에 대한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하고 왔지만, 막상 이렇게 이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삶을 나누다 보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안타까운 마음이 피부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교의 시작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 9:36a) 이 말씀에 있음을 비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란, 비록 제가 연약하여 더위나 음식이나 언어등으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또한 부족하여서 어떤 대단한 행위나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어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숫자로 환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좀 더 다가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 1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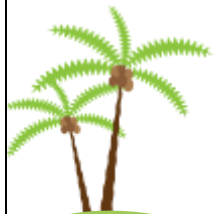
수리중인 교실



마띠 고등학교 화장실

기도 요청

-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 디고스 학원 선교 기관 설립을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